

## 이명

기원전 400년경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으로 기술한 이명은 외부로부터의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상태로, 현재까지도 뚜렷한 원인과 기전에 대한 정설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통 환자 자신에게만 들리는 자각적 이명과 드물게 검사자에게도 청취되는 타각적 이명으로 분류되는데 귀울림이 있다가나 머리에서 소리가 들린다(웅-, 웅-, 왕-, 싸-, 썩-, 매미소리, 바람소리 등)는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 원인

귀지, 이물 등의 외이도질환, 급성 또는 만성 중이질환, 내이염 같은 내이질환과 메니에르 병, 약물중독에 의한 청기장애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경우, 두부외상 후, 청신경종양 등의 소뇌 교각부 병변, 혈압이상, 혈관성 증양, 동정맥 기형, 정맥성 잡음, 근수축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피로하거나 조용할 때 신경을 쓸 때 이명이 심해집니다.

### 진단

이명의 진단은 우선 기본적인 귀 검사로서 외이도와 고막의 진찰, 청력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청력검사에서 소리를 전달하는 청각세포나 청신경의 장애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경우엔 뇌파를 이용한 뇌간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하며, CT나 MRI, 혈관조영술 등으로 보다 자세히 병변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치료

중양이나 혈관이상, 턱관절 장애 등의 특정한 병변이 밝혀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이명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특별한 구조적 병변이 없이 이명만 있는 경우 수술적 치료는 아직까지 불가능하며 치료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치료방법들이 소개되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수술적 이명 치료방법은 약물치료, 이명의 습관화, 되먹임요법, 청각통합훈련, 생체되먹이기요법, 이명차폐기, 보청기(난청이 동반된 경우), 전기자극, 음향치료, 최면요법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다른 치료제가 시도되고 있으나 모든 약물은 전문의의 처방 없이 사용하는 경우 대단히 위험하고 부작용이나 중독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 건물 배치도



### 교통안내

버스 : 16번, 61번, 161번, 6번, 6-1번, 17번, 17-1번

지하철 : 1호선 자갈치역 하차후 버스이용

셔틀버스 : 오전 7시부터 오후3시 ( 병원<->다대포 해수욕장)



아시아어브병원·암센터전문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약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려학원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4번지  
T 051)990-6114~5 F 051)990-3005  
www.kosinmed.or.kr

이비인후과 외래: 051-990-6137, 6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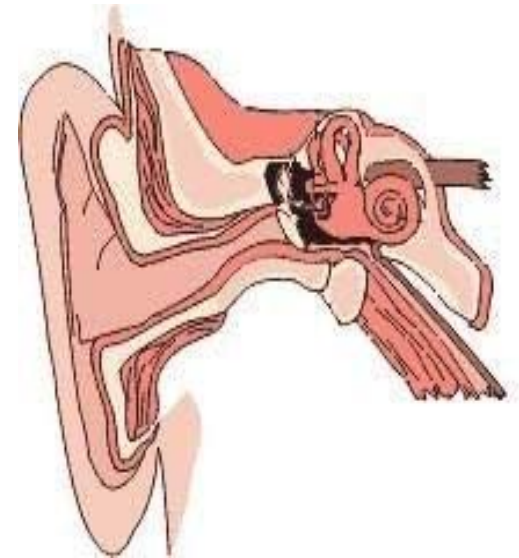
www.kosinmed.or.kr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Clinic

## 귀(EAR)질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 중이염이란 ?

중이염이란 중이에 생긴 염증을 말하며 병의 발병기간과 병의 성격에 따라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및 만성 중이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급성 중이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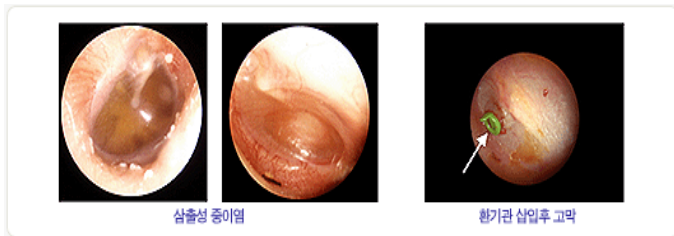
감기와 함께 발열, 귀의 통증을 동반하게 되며 항생제를 2주간 복용하면 대부분 치료된다.



## 삼출성 중이염

1. 중이 내에 액체가 고여 있는 상태로, 증상은 주로 난청이지만 환아가 뚜렷한 불편을 모르고 지낼 수도 있어 TV소리를 높여서 듣는 경우 또는 큰 소리로 말해야만 알아듣는 경우에는 한번쯤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치료: 치료는 대개 약 2~3주간의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나 약물 투여에 의한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고막 절개술에 의한 환기관 삽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 난청에 대해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의 중요성

건강한 신생아 1000명중 1-3명이 영구적인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며 출생 후 3년 동안이 말과 언어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2세 이전에 난청이 발견되어 치료되지 않는다면 언어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어 언어 재활의 어려움과 더불어 평생 장애인으로 남게 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통한 영유아난청의 조기 진단은 청력손실로 인한 말 언어장애를 최소화하고 언어 발달을 위한 재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언어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검사방법

청각선별검사로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은 유발이음향방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이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현재 이음향방사검사를 사용하여 청각 식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음향방사검사는 수유실 등의 조용한 장소에서 매일 시행하여 검사에 통과되지 않은 경우 퇴원전까지 2-3회 추가 시행하게 됩니다. 퇴원시까지 통과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4주 이내 다시 이음향방사를 시행하게 되고, 통과되지 않을 시 생후 8주 이내 외이도 및 고막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시행해 난청을 진단하게 됩니다.

### 난청의 조기진단 및 조기교육

영아에 대한 청각선별검사는 난청이 있는 영아를 조기에 진단하는데 있습니다. 신생아기에 난청이 진단되어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이용한 청능훈련 및 특수교육을 실시하면 정상에 가까운 청능 및 언어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신생아에 대하여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고신의료원에서는 이러한 신생아 난청의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청기란 무엇인가?

보청기(hearing aid)란 이름 그대로 청력을 도와주는 기계라는 말이며 간단히 증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력이 저하되어 약하게 들리거나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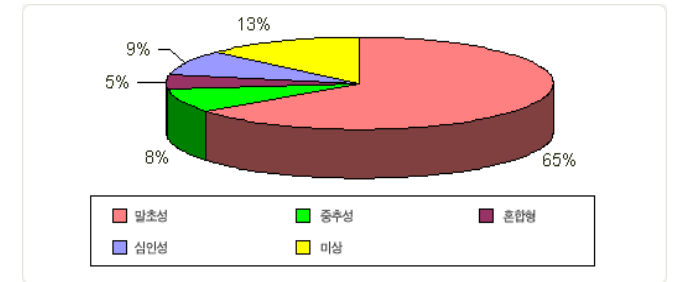
## 보청기의 종류



## 어지러움증의 이해

흔히 “어지럽다” 라고 할 때는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한 감각이 혼란스러울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지러움의 원인으로는 귀에서 뇌에까지 이르는 전정계의 이상, 심혈관계의 이상, 정신과적 문제, 약물중독, 안구이상, 당뇨, 생리학적인 현상 등등 매우 다양하여 원인을 감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지러움의 원인 중 65%가 말초성, 즉, 귀의 전정기관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어지러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1. 정확한 문진 (가장 중요)
2. 평형 (전정) 기능 검사
3. 청력검사, 뇌파검사
4. 안과적 검사
5. 혈액검사, 심전도
6. 방사선 촬영 (MRI)



전기안진검사



온도안진검사